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

윤 을 요 · 박 선 경*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초빙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단일 원형과 체형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을 통해 단일 원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량생산의 효율성과 개인별 체형의 차이성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안은 패턴의 세분화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미래에 실현될 3D패턴의 상용화에 앞서 체형별 원형패턴의 활용은 과도기적인 상황 하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스크스터마이제이션 시대의 패턴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의 제작과 그에 관한 관계식의 설정은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국내에서 사용되는 13종의 상의원형 패턴을 비교하고, 둘째, 상의원형 패턴 설계의 관계식 설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체촌 부위별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셋째, 앞서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원형 설계를 위한 패턴 계산식을 체형별로 체계화하였고, 또한 이러한 패턴 계산식을 토대로 연구 실험복을 제작, 분석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에 관한 연구로서 향후 세분화 원형패턴의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체형, 원형패턴, 패턴 계산식

I. 서론

다양한 개인의 체형별 특징은 인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시킬 수 없다. 오늘날, 3D 자동화 패턴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패턴의 실현은 이제 개인을 좀 더 개별적인 객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모든 패턴을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개별화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3D 자동화 패턴시스템¹⁾의 실현은 많은 의류브랜드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요소로써, 자동화 시스템의 상용화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시점의 환경적 한계와 단일화된 원형패턴이 갖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연령별·체형별 원형패턴의 사용은 패턴의 개인화를 이끄는 패턴 세분화의 기초과정으로서 많은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분화된 원형패턴의 기초 연구로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한국인 체형분류를 근거로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²⁾에 대한 세분화된 관계식 체계를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원형패턴³⁾⁴⁾⁵⁾⁶⁾⁷⁾⁸⁾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13종의 원형을 채집하여 그 특징과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한 후, 시험 원형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선별하여

이를 비교 연구원형으로 제작, 평가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험 연구원형⁹⁾의 관계식 도출을 위하여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패턴 설계 시, 활용되는 각각의 체촌 부위별 적용 치수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셋째, 상기의 결과로 획득된 시험 연구원형의 관계식을 토대로 기초실험을 거쳐 본격적인 체형별 연구 원형패턴 제작에 관한 관계식을 설정한다. 넷째,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의 관계식을 기초로 2차에 걸쳐 연구원형을 제작, 평가, 수정하여 최종 연구원형을 도

출해낸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얻어낸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 제작에 관한 관계식의 체계를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원형패턴 세분화’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도래할 ‘개인화된 패턴’ 시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연구이며, 따라서 이 같은 연구가 개별화된 패턴 시대를 이끄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의 선정과 체형별 분류

1) 연구 대상자 선정

실험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연령과 체형별 특징을 기준으로 조사된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의 측정결과¹⁰⁾에서 나타난 신체 사이즈를 토대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은 크게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체형의 치수를 평균한 평균체형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신체치수 부분에 있어서는 <표 1>과 같이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할 수 있는 젓가슴둘레와 허리둘레, 그리고 엉덩이둘레의 차이값이 다른 체형에 비하여 상대적인 편차를 보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하여 신체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실험의 연구 대상자 선정은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신체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20대 여성으로 <표 2>의 체형별 신체치수와 <표 3>의 체형별 특징을 동시에 만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험한다.



<그림 1> 평균체형과 비교한 체형별 이미지

<표 1> 연령대별 평균체형의 신체치수¹¹⁾

(단위: mm)

구 분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60대 여성
젓가슴둘레	820.7	856.4	885.4	930.7	946.7
허리둘레	673.1	724.9	755.5	817.4	863.4
엉덩이둘레	908.4	912.5	921.3	932.8	927.6
젓가슴둘레 - 허리둘레	(147.6)	(131.5)	(129.9)	(113.3)	(83.3)
엉덩이둘레 - 허리둘레	(235.3)	(187.6)	(165.8)	(115.4)	(64.2)

<표 2> 연구 대상 표본의 체형별 신체치수¹²⁾

(단위: cm)

체 형	키	등길이	앞길이	어깨너비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유장	유폭	앞폭	뒤폭	팔길이
평균체형	159.7	38.1	39.8	39.9	82.2	82.1	67.3	24.9	17.3	32.1	36.6	53.2
작은역삼각체형	158.8	37.6	39.0	39.9	80.3	80.0	65.5	24.4	17.1	31.9	36.1	53.2
큰삼각체형	158.7	39.0	41.1	40.8	88.8	90.6	76.2	27.6	18.6	32.3	38.1	54.0
역삼각체형	160.4	38.5	40.1	41.1	82.6	81.7	67.2	24.9	17.0	33.0	37.5	52.8
사각체형	161.3	38.5	40.1	38.4	81.0	80.7	65.9	24.6	17.1	31.7	35.2	53.3

2) 연구 대상의 체형별 분류와 특징

연구 대상의 체형별 분류는 사이즈 코리아의 자료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표 3>의 작은역삼각체형(29%)은 가는 몸통에 처진 어깨가 특징이며, 큰 삼각체형(19.3%)은 20대 체형 중 가장 굵은 몸통에 보통 어깨가 특징이고, 역삼각체형(28.8%)은

굵은 몸통에 넓은 어깨가 특징이다. 또한 사각체형(25%)은 가는 몸통에 위로 솟은 어깨가 특징이며, 평균체형은 이 같은 특징을 전체적으로 평균화한 체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실험의 연구 대상자는 <표 2>와 <표 3>의 체형별 특징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체형의 군집별 특징¹³⁾

체 형	구성비	특 징
작은역삼각체형	29.0%	가는 몸통, 보통 너비의 처진 어깨, 긴 팔, 큰 머리, 짧은 엉덩이길이, 긴 지체
큰삼각체형	17.3%	굵은 몸통, 보통의 어깨너비, 긴 팔, 긴 총길이, 보통의 엉덩이길이
역삼각체형	28.8%	굵은 몸통, 매우 넓은 어깨, 짧은 팔, 보통의 엉덩이 길이
사각체형	25.0%	가는 몸통, 매우 좁고 추켜진 어깨, 짧은 팔, 약간 긴 엉덩이길이, 약간 짧은 지체

2. 연구원형의 선정 및 착의 모델선정

1) 연구 원형 선정의 기준과 전제

상의원형 패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은 합리성과 적합성에 핵심을 두었으며, 따라서 첫째, 인체와 원형과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보정 과정을 축소화 하고, 둘째, 패턴 설계에 관한 관계식 체계와 기준설정에 관한 타당성과 합리적인 설계 방식에 초점을 두며, 셋째, 소량생산은 물론 대량생산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효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패턴 설계의 방법론적 전제는 첫째, 세분화된 관계식의 설정으로 오차의 범위를 줄인다. 둘째,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패턴을 비교한 후, 이를 토대로 비교 연구원형을 제작하고, 이를 시험 연구원형과 비교 평가하여 타당성을 입증한다. 셋째, 패턴설계 시 계속되는 각각의 체촌 부위별 상호관련성을 이해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식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한다. 넷째, 소량·대량 생산에 모두 만족하기 위한 설계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병용식 원형패턴의 설계 방식을 따른다. 실제로 장촌식 패턴은 설계가 쉽고, 활용이 용이하나 오차가 많을 수 있으며, 단촌식 패턴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오차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비례식을 활용하는 병용식 패턴법을 채택한다. 아울러 비례식의 기준 항목은 타당성을 고려하여 체촌 부위별로 연관성이 큰 항목으로 설정하며, 기준 항목이 많아지는 것은 오차의 범위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기준 항목 설정이 최선안이라는 판단이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전제들을 근거로 패턴 설계를 위한 관계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형패턴의 명칭은 원형 개발자의 이름을 기초로 명명되거나 교육기관의 기관명을 대표로 사용되어진다. 대체로 계측 항목을 기준으로 원형을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인체의 밀착도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유분에 따라 인체에 밀착되는 타이트 피트 원형, 중간 정도의 여유를 갖는 세미타이트피트 원형, 어깨, 목밑둘레, 진동둘레 부분을 맞추고 다른 부분은 헐렁하게 한 루스 피트 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또한 <표 4>15)16)17)18)19)20)21)의 원형패턴 종류와 그 특징은 김희영(1988)²²⁾과 이명옥(2000)²³⁾의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부분을 추가 정리한 것으로 비교원형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착의 모델 선정과 피험자의 인체계측

착의실험을 위한 피험자 선정의 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째, 국내 20대 여성으로서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20대 여성의 체형별 특징이 두드러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모델을 선별하고, 선별된 모델 중 사이즈 코리아의 표본 신체치수와 유사한 모델을 2차 선별한다. 최종 연구실험의 대상자는 2차 선별된 모델 중,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Drop치(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값)가 최대 0.5cm미만(젖가슴둘레-가슴둘레: 최대 0.2cm의 오차범위 내 / 가슴둘레-허리둘레: 최대 0.5cm의 오차범위내)인 모델을 실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Drop치를 모델 선정의 최종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Drop치에 사용되는 젖가슴둘레와 가

<표 4> 원형 패턴의 종류

분 류	질개식	절충식	도재은식	박혜숙식	이승렬식	라사라식	국제식	신문화식	시대식	도레메식	SECOLI	ESMOD	F.I.T식
설계식	병용식	병용식	병용식	병용식	장촌식	병용식	장촌식	장촌식	병용식	병용식	병용식	병용식	단촌식

<표 5> 체형별 표본 Drop치와 착의 대상자 Drop치의 편차 비교

(단위: cm)

항목	평균체형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표본	대상자①	대상자②	표본	대상자③	대상자④	표본	대상자⑤	대상자⑥	표본	대상자⑦	대상자⑧	표본	대상자⑨	대상자⑩
젓가슴둘레-가슴둘레	0.1	0.3	0.2	0.3	0.4	0.3	1.8	1.7	1.6	0.9	1.0	0.9	0.3	0.4	0.4
오차범위	-	0.2	0.1	-	0.1	0.0	-	0.1	0.2	-	0.1	0.0	-	0.1	0.1
가슴둘레-허리둘레	14.9	15.2	14.6	14.8	14.9	14.8	12.6	12.1	12.2	15.4	15.1	15.3	15.1	14.9	15.0
오차범위	-	0.3	0.3	-	0.1	0.0	-	0.5	0.4	-	0.3	0.1	-	0.2	0.1

슴둘레는 상의원형 설계 시, 전체의 외곽을 설정하는 기초 값이며, 허리둘레는 가장 작은 부분을 설정하는 기초 값으로 상체의 가장 넓은 폭과 좁은 폭의 편차를 나타내는 Drop치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편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이자 상의원형 제작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 있어서는 피험자의 신체치수가 표본 치수를 기준으로 0.5cm 이하의 편차를 지니는 모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따라서 최종 착의 실험 대상자는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는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체형별로 2명씩의 착의 실험 대상자를 배분하였는데, 체형별 원형 설계를 위한 실측 치수는 <표 6>과 같다. 다만, 사이즈 코리아의 계측치수는 브라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촌하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1차는 누드사이즈로 채촌하고, 여기에 속옷 브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지어 착용 전, 후의 보정값 1cm를 추가하여 젓가슴둘레의 치수를 재정리하였다. 선행연구 이형숙, 임영자(2000)²⁴⁾에 있어서도 브라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젓가슴둘레를 측정하였을 경우 누드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젓가슴둘레가 1.2cm 증가하였다²⁵⁾는 결과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속옷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0.3cm의 기본 패드를 넣은 브라지어를 착용하고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가 속옷 브랜드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기에 앞서 설명

한 대로 1cm로 보정값을 더하여 젓가슴둘레를 보정하였다.

실제로 국내 20대 여성의 경우 큰삼각체형을 제외하고는 누드사이즈로 측정 시, 대부분이 가슴둘레가 젓가슴둘레보다 크다는 것이 사이즈코리아의 실험결과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많은 여성들이 착의 시에는 브라지어를 착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상의원형은 브라지어를 착용한 치수로 보정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젓가슴둘레는 보정값을 적용하고자 한다.

3. 착의 실험 및 평가 방법

1) 착의 실험

분류된 체형의 신체치수를 기준으로 앞서의 피험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10명의 대상자를 피험자로 선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의원형의 고찰을 통해 비교원형을 제작하고, 패턴제작에 대한 관계식을 기초로 시험 연구원형을 제작하며, 시험 연구원형을 통해 발견된 문제와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패턴 계산식을 마련한 후, 연구원형1을 제작하고, 연구원형 1에서 발견된 오류 정정을 통해 수정된 계산식으로 연구원형 2를 제작하여 점검 평가 후, 최종적인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의 계산식을 설정한다. 연구 실험복은 치수상의 변화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세처리 하였으며,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연구원형 설계를 위한 직접계측 항목

(단위: cm)

체형	모델	키	등길이	어깨사이 길이	가슴 둘레	젓가슴 둘레	허리 둘레	목옆젓꼭 지길이	젓꼭지사이 수평길이	거드랑앞벽 사이길이	거드랑뒤벽 사이길이	팔길이
평균 체형	표본	159.7	38.1	39.9	82.2	82.1 (83.1)	67.3	24.9	17.3	32.1	36.6	53.2
	①	159.2	36.5	38.0	82.2	81.9 (82.9)	67.0	23.2	15.5	29.1	34.2	52.8
	②	160.5	37.0	38.0	82.0	81.8 (82.8)	67.4	22.8	15.0	30.5	34.3	53.6
작은역삼각체형	표본	158.8	37.6	39.9	80.3	80.0 (81.0)	65.5	24.4	17.1	31.9	36.1	53.2
	③	159.3	34.8	38.8	80.2	79.8 (80.8)	65.3	22.6	16.2	30.4	32.8	53.4
	④	160.8	35.5	38.4	79.6	79.3 (80.3)	64.8	22.7	16.1	28.3	33.2	54.6
큰삼각체형	표본	158.7	39.0	40.8	88.8	90.6 (91.6)	76.2	27.6	18.6	32.3	38.1	54.0
	⑤	158.6	36.5	39.0	88.7	90.4 (91.4)	76.6	24.0	17.3	31	37.8	54.2
	⑥	158.7	36.6	36.4	87.3	88.9 (89.9)	75.1	23.4	16.2	33.1	34.9	54.8
역삼각체형	표본	160.4	38.5	41.1	82.6	81.7 (82.7)	67.2	24.9	17.0	33.0	37.5	52.8
	⑦	158.8	38.6	41.0	82.6	81.6 (82.6)	67.5	22.7	16.0	32.8	35.3	52.1
	⑧	161.2	36.0	40.7	83.5	82.6 (83.6)	68.2	22.5	16.5	32.5	32.0	54.3
사각체형	표본	161.3	38.5	38.4	81.0	80.7 (81.7)	65.9	24.6	17.1	31.7	35.2	53.3
	⑨	158.3	37.3	38.3	79.7	79.3 (80.3)	64.8	24.0	18.0	31.2	32.2	53.1
	⑩	158.5	35.8	38.5	82.0	81.6 (82.6)	67.0	22.7	16.5	29.8	34.5	52.8

* (괄호) : 브래지어 착용 후의 보정값 적용 치이며, 패턴제작은 보정치수를 기준으로 함.

<표 7> 실험 소재의 물리적 특징

섬 유	면 100%	
번 수	20 수	
조 직	평 직	
밀 도	60×60	
무게(g/m ²)	149.6	
인장강도	경 사	324
	위 사	363

착의 실험에 관한 평가 심사는 패턴부문에서 종사하는 전문인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였고, 실험 평가를 거쳐 수정, 보완의 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원형을 제작하고 이를 실험함으로써 4차에 걸친 착의 실험을 진행한다.

2) 시험 연구원형 설계를 위한 관계식

시험 연구원형은 병용식 패턴으로 선정하였으며, 병용식 패턴 설계에 주요 치수로 활용되는 등 길이, 어깨넓이, 가슴둘레,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유장과 유폭은 실측 치수에 의거하고 거드랑앞벽 사이길이와 거드랑뒷벽사이길이, 진동길이, 뒷목

<표 8> 시험 연구원형 제작을 위한 적용항목별 체촌 부위의 상호관계식

적용 항목	상호 관련성	패턴 계산식
원형 앞판	젓가슴둘레와 적정 여유분의 상관성	젓가슴둘레/4+1.4+1
원형 뒤판	가슴둘레와 적정 여유분의 상관성	가슴둘레/4+1.4
거드랑앞벽사이길이	젓가슴둘레와 가슴둘레, 앞품 뒤품 상관성	가슴둘레/5+1.5+1D.T.S-1
거드랑뒤벽사이길이	가슴둘레, 앞품, 뒤품 상관성	가슴둘레/5+1.5
진동길이	키와 진동길이의 상관성	키/8.3+1.4
뒷목너비	가슴둘레와 뒷목너비의 상관성	가슴둘레/12
뒷목높이	가슴둘레와 뒷목높이의 상관성	가슴둘레/30+1
앞목깊이	가슴둘레, 뒷목너비와 앞목깊이의 상관성	가슴둘레/12

* D.T.S(Differenza Torace Seno): 젓가슴둘레-가슴둘레의 차이값

너비, 뒷목높이, 앞목깊이는 비례식에 의거하여 설계하는데, 설계를 위한 각각의 체촌 부위별 상호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것은 체형별 관계식 설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패턴설계의 기초가 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표 8>과 같이 관계식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시험 연구원형의 패턴을 설계한다. 또한 시험 연구원형을 위해 설정된 관계식은 연구원형1, 연구원형2의 실험 제작의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체형별 관계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시험 연구원형 제작을 위한 관계식 설정의 기준과 근거는 첫째,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형 패턴의 계산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특징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패턴 설계시 적용기준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우수한 내용을 시험 연구원형 관계식 설정의 1차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둘째,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형들 가운데 병용식을 사용하는 패턴을 2차로 참고하였고, 셋째, 일반적으로 몸판과 소매의 맞음새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세폴리

패턴을 비교원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시험 연구원형과 비교해 봄으로써 <표 8>과 같이 시험 연구원형의 관계식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시험 연구원형 제작을 위한 적용 항목의 용어는 사이즈코리아의 자료에 기준하였으며,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앞판과 뒤판

앞판과 뒤판은 상의원형 패턴의 전체적인 외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부분 아래 <표 9>와 같이 젓가슴둘레나 가슴둘레를 기본치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여유분을 더하여 전체적인 맞음새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판의 경우, 가장 넓은 부분이 젓가슴둘레이며, 뒤판의 경우는 가장 넓은 부분이 가슴둘레라는 점에 근거하여 시험 연구원형의 앞판은 젓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고 뒤판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앞뒤판 공히 여유분으로 1.4cm씩을

<표 9> 원형패턴 앞. 뒤판의 관계식 비교

구분	절충식	신문화식	박혜숙	국제식	도레메	F.I.T	도제은	secoli식	시대식	이승렬식	라사라식	절개식	ESMOD식
앞뒤판(1/2)	젓가슴둘레/2+6	(15/64×젓가슴둘레+2.4)+(15/64×젓가슴둘레+3.6)	젓가슴둘레/2+4			젓가슴둘레/2+3.75	젓가슴둘레/2+2.4	(젓가슴둘레/4+2.5)+(가슴둘레/4+1.5)	(젓가슴둘레/4+1.2)+(가슴둘레/4+1.2)	(젓가슴둘레/4+2)+(가슴둘레/4+2)	(젓가슴둘레/4+2.5)+(가슴둘레/4+1.8)	가슴둘레/2+4	(젓가슴둘레/4+1+1)+(젓가슴둘레/4+1+1)

<표 10> 패턴별 관계식을 활용한 표준체형 앞판과 뒤판의 치수 비교

구분	절충식	신문화식	박혜숙	국제식	도레메	F.I.T	도재은	secoli	시대식	이승렬	라사라	절개식	ESMOD
앞.뒤판	47.0	44.4	45.0	45.0	45.0	44.8	43.4	45.0	43.4	45.0	45.3	45.1	43.0

더하고 여기에 앞판에는 어깨다트 설정에 의해 소실되는 상동선 아래의 다트분량과 유동분량을 감안하여 1cm의 여유값을 추가하여 시험 연구원형을 제작을 위한 패턴계산식을 <표 8>과 같이 설정한다.

(2) 겨드랑앞. 뒤벽사이길이 (앞품. 뒤품)

겨드랑앞벽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는 직접적으로 젓가슴둘레와 가슴둘레와 연관성을 지니며, 간접적으로는 팔뚝의 너비와 관련을 갖는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 패턴의 겨드랑앞. 뒤벽사이길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고, 이를 표준체형으로 계산하면 <표 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옆선 다트를 기본으로 하는 원형의 경우에는 다트의 분량이 품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까닭으로 패턴상에 있어서 뒤품이 앞품보다 큰 값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어깨 다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트량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 때문에 앞품이 뒤품보다 큰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본 시험 연구원형도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겨드랑앞벽사이

길이를 겨드랑뒤벽사이 길이보다 크게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겨드랑앞. 뒤벽사이길이는 가슴둘레를 5등분하고, 여기에 여유분으로 1.5cm를 더한다. 아울러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의 경우(D.T.S) 즉, 젓가슴둘레에서 가슴둘레를 뺀 차이값을 추가시키고, 다시 1cm를 차감하여 설계한다.

(3) 진동길이

진동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가슴둘레나 젓가슴둘레로 비례식을 정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로축의 개념보다는 세로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진동길이를 정하면, 가슴둘레가 큰 사람은 항상 진동길이가 길어지는데, 가슴둘레가 큰 사람이 반드시 진동의 길이가 길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동의 길이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신장과 관련하여 등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이는 인체비례도를 기초해 볼 때도 훨씬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길이를 세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등신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

<표 11> 원형패턴 겨드랑앞. 뒤벽사이길이 관계식 비교

구분	절충식	라사라	절개식	시대식	도레메	ESMOD	박혜숙	secoli	이승렬	신문화식	국제식	도재은	F.I.T
앞품	실측						어깨넓이/2-1.8×2	가슴둘레/5+1.6-1+다트분량×2	가슴둘레/6+3×2	젓가슴둘레/8+6.2×2	젓가슴둘레/6+젓가슴둘레/48+5/6×2	어깨넓이	앞가슴둘레/2-3.9-2×2
뒤품							뒷품/2+0.5×2	가슴둘레/5+1.6×2	가슴둘레/6+4×2	젓가슴둘레/8+7.4×2	젓가슴둘레/6+젓가슴둘레/48+4/3×2	어깨넓이	실측+0.6×2

<표 12> 패턴별 관계식을 활용한 표준체형 앞품과 뒤품의 치수 비교

구분	절충식	라사라	절개식	시대식	도레메	ESMOD	박혜숙	secoli	이승렬	신문화식	국제식	도재은	F.I.T
앞품	32.1	32.1	32.1	32.1	32.1	32.1	36.3	34.0+다트	33.4	32.8	32.2	39.9	29.3
뒤품	36.6	36.6	36.6	36.6	36.6	36.6	37.6	36.0	35.4	35.2	33.2	39.9	37.8

며, 신장을 8.3등신으로 나누어 관계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등신이란 신장을 머리높이로 등분하였을 때, 얻어지는 값으로 서구에서는 이상적인 모델을 8등신으로 칭하며, 3등신까지의 선을 허리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등신까지의 길이를 등길이를 책정하고, 1등신의 길이에 여유분을 더한 값을 진동길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8등신의 개념은 우리 체형에는 맞는 않는 수치이며, 실제로 사이즈코리아의 실측치에 기초한 신장과 머리높이를 계산한 결과는 <표 13>과 같이 평균 7.2등신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내 여성의 머리높이가 서구인에 비하여 길다는 결론에 이른다.

<표 13> 20대 여성의 체형별 등신비율

구분	평균 체형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신장	159.7	158.8	158.7	160.4	161.3
머리높이	22.15	22.2	22.4	22.1	22.1
실제등신	7.2	7.15	7.08	7.26	7.29

하지만 머리높이라는 제한점에서만 벗어나 적절한 비율의 등신치를 얻어낸다면 이는 등길이의 개념으로도 진동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장을 머리높이가 아닌 등길이를로 나누어 보면 적절한 등신의 비율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진동길이를 위한 체형별 적정 등신비율

구분	평균 체형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실측등길이	38.1	37.6	39.0	38.5	38.5
신장	159.7	158.8	158.7	160.4	161.3
계산식	신장/실측등길이×2				
적정등신비율	8.3	8.4	8.1	8.3	8.4

그러므로 <표 14>의 결과에 근거하여 진동길이 또한 신장을 8.3cm으로 나누고 여기에 여유분 1.4cm를 더하여 시험원형 제작을 위한 관계식을 설정하고자 하며, <표 15>와 <표 16>은 원형패턴별 진동길이에 대한 관계식과 진동길이를 계산해 놓은 치수 비교표이다.

(4) 뒷목너비

사이즈코리아의 인체계측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2뒷목둘레너비는 목뒤젓꼭지허리둘레선 길이에서 목옆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를 감산한 값으로 실측한 목밑둘레의 값은 아래 <표 17>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원형은 뒷목너비 책정에 있어 젓가슴둘레와 가슴둘레에 관한 비례식의 활용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은데,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평균체형의 뒷목너비를 계산하여 패턴별로 그 값을 비교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체적인 뒷목너비는 7.0-6.1까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표 15> 원형패턴 진동길이의 관계식 비교

구분	절충식	박혜숙	국제식	라사라	절개식	시대식	신문화식	secoli	이승렬	도래메	도재은	ESMOD	F.I.T
진동길이	젓가슴둘레/4	가슴둘레/4	젓가슴둘레/12+13.7	키/8+1.5	가슴둘레/6+7	등길이/2+1	20.5+0.45g	등길이+앞길이/4+2	등길이+0.3-겨드랑밀길이				

<표 16> 패턴별 관계식을 활용한 표준체형 진동길이의 치수 비교

구분	절충식	박혜숙	국제식	라사라	절개식	시대식	신문화식	secoli	이승렬	도래메	도재은	ESMOD	F.I.T
진동길이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1.4	20.7	20.0	20.5	21.4	17.1

<표 17> 목뒤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와 목옆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의 비교

계측항목	평균체형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목뒤젓꼭지 허리둘레선길이	32.7	31.9	35.1	32.8	32.3
목옆젓꼭지 허리둘레선길이	24.9	24.4	27.6	24.9	24.6
관계식	목뒤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목옆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 = 뒷목너비				
1/2뒷목둘레너비	7.8	7.5	7.5	7.9	7.7
실측 목밑둘레	36.6	36.2	38.0	36.2	36.4

<표 18> 원형패턴 뒷목너비의 관계식 비교

구분	절충식	라사라	국제식	절개식	시대식	secoli	이승렬	도레메	신문화식	박혜숙	도재은	ESMOD	F.I.T
뒷목너비 (1/2)	젓가슴둘레/12			가슴둘레/12		가슴둘레/20+2.8		뒷목밑둘레/6+0.5	젓가슴둘레/24+3.6	젓가슴둘레/20+2.9	6.6+0.15g	목밑둘레/6	실측

뒷목너비 관계식 설정의 기준은 뒤판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 가슴둘레라는 점에 귀착하여 젓가슴둘레가 아닌 가슴둘레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대체로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가슴둘레를 12등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인체비례를 고려할 때, 1/2 뒷목너비는 1/4가슴둘레 안에 1/3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뒷목너비는 가슴둘레를 12등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5) 뒷목높이와 앞목길이

뒷목 높이는 뒷목너비나 가슴둘레를 비례식으로

로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목의 길이는 대체로 뒷목의 너비와 유사한 값을 지닌다. 앞서 뒷목의 너비를 가슴둘레나 젓가슴둘레에 의해 비례식으로 책정하였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앞목의 길이는 <표 20>과 같이 젓가슴둘레나 가슴둘레를 12등분하고 여기에 각각 패턴의 특징별로 여유량을 가감해 책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뒷목높이의 경우 가슴둘레를 30등분하고 여기에 1cm를 더한 값을 뒷목높이로 책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30등분한다는 것은 곧 뒷목너비를 3등분해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뒷목높이의 관계식 설정에 뒷목너비의 치수를 비례 적용하지

<표 19> 패턴별 관계식을 활용한 표준체형 뒷목너비의 치수 비교

구분	절충식	라사라	국제식	절개식	시대식	박혜숙	신문화식	secoli	이승렬	도레메	도재은	ESMOD	F.I.T
뒷목너비	6.8	6.8	6.8	6.8	6.8	7.0	7.0	6.9	6.9	6.6	6.6	6.1	실측

<표 20> 원형패턴 뒷목높이와 앞목길이 관계식 비교

구분	박혜숙	ESMOD	절충식	국제식	신문화식	라사라	이승렬	secoli	시대식	절개식	도재은	도레메	F.I.T
뒷목 높이	뒷목너비/3	뒷목너비/4	젓가슴둘레/36	젓가슴둘레/48	뒷목너비/6	3.1	가슴둘레/20+2.8/3	가슴둘레/40-0.2	2.5	1.9	2+0.1	1.8	실측
앞목 길이	젓가슴둘레/20+2.9+1	목밑둘레/2×1/3+1	젓가슴둘레/12+0.5	젓가슴둘레/12	앞목너비+0.5 (젓가슴둘레/24+3.4=앞목너비)	젓가슴둘레/12-0.6	가슴둘레/20+2.8+1	가슴둘레/12+1	가슴둘레/12		7.5+0.1g	7.5	실측

<표 21> 패턴별 관계식을 활용한 표준체형 뒷목높이와 앞목깊이의 치수 비교

구분	박혜숙	ESMOD	질중식	국제식	신문화식	라사라	이승렬	secoli	시대식	질개식	도재은	도레메	F.I.T
뒷목높이	2.3	1.5	2.2	1.7	1.1	3.1	2.3	1.8	2.5	1.9	2.1	1.8	실측
앞목깊이	8.0	7.1	7.3	6.8	7.3	6.2	7.9	7.8	6.8	6.8	7.5	7.5	실측

않는 이유는 비례식의 기준항목을 많이 책정하지 않고자 함이며, 그 이유는 기준항목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오차 범위도 커질 수 있다는 앞선 전체에 근거한다. 또한 앞목의 깊이는 뒷목의 너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목둘레의 외곽선이 원기둥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원기둥을 단면화 시키면 이는 정사각형 내에 있는 하나의 원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으며, 정사각형의 한 변을 전체 뒷목너비로 이해할 때, 앞목의 깊이는 자연히 뒷목너비에 해당됨으로 앞목의 깊이는 가슴둘레를 12등분한 뒷목너비로 치환해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연구원형의 착의 평가방법

연구원형의 착의평가를 위한 관능검사 방법은 <표 22>의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한, 총 43개의 관능검사 문항은 김지민(2002)²⁶⁾의 선행연구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능검사 방법은 체형별로 제작된 연구원형을 착용하고 각각의 문항을 기준으로 환산된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아울러, 평점방식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의 리커트(likert)방식을 채택한다.

<표 22> 연구원형의 관능 검사항목

연번	관 능 검 사 항 목	연번	관 능 검 사 항 목
1	앞 중심선은 앞목점을 기준으로 수직에 위치하는가?	23	뒤 허리 다트위치는 정확한가?
2	앞목둘레선은 목선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는가?	24	뒤 허리 다트깊이는 적당한가?
3	옆목둘레선은 목선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는가?	25	뒤 어깨 다트량은 적당한가?
4	뒤목둘레선은 목선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는가?	26	뒤 어깨 다트위치는 정확한가?
5	어깨선은 어깨 기울기와 각도가 일치하는가?	27	뒤 어깨 다트깊이는 적당한가?
6	어깨점은 제 위치에 놓여 있는가?	28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7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9	허리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8	앞판 어깨의 다트위치는 정확한가?	30	뒤 허리둘레선은 제 위치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가?
9	앞판 어깨의 다트깊이는 적당한가?	31	앞 허리둘레선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가?
10	앞판 어깨의 다트량은 적당한가?	32	옆 허리둘레선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가?
11	B.P의 위치는 바로 놓여 있는가?	33	소매통의 여유 값은 전체적으로 적당한가?
12	앞 허리 다트위치는 정확한가?	34	소매의 달림선이 적합한가?
13	앞 허리 다트깊이는 적당한가?	35	소매둘레선은 거드랑둘레선 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는가?
14	앞 허리 다트량은 적당한가?	36	앞판의 소매둘레선은 앞판 거드랑둘레선의 곡선을 따르는가?
15	앞판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7	뒤판의 소매둘레선은 뒤판 거드랑둘레선의 곡선을 따르는가?
16	앞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8	진동깊이는 알맞은가?
17	뒤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9	부동자세에서 거드랑이의 편안함은 어떠한가?
18	옆 솔기선은 피관측자의 옆 중심에 놓여 있는가?	40	앞뒤 90° 각도로 움직였을 때 거드랑이의 편안함은 어떠한가?
19	옆의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41	45° 팔을 편 상태에서 거드랑둘레선의 곡선은 자연스러운가?
20	뒤 중심선은 뒤 목점을 기준으로 수직에 위치하는가?	42	90° 팔을 편 상태에서 거드랑둘레선의 곡선은 자연스러운가?
22	뒤 허리 다트량은 적당한가?	43	전체적인 실루엣은 적당한가?

III. 연구 결과 및 평가

1. 연구 결과

1) 연구원형 설계의 관계식

연구의 결과인 체형별 연구원형에 관한 관계식은 시험원형 및 1차, 2차의 연구원형의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식을 설정하였으며, 최종적인 연구 결과의 내용은 <표 23>과 같다.

첫째, 등길이와 앞길이, 유장, 유폭, 어깨넓이, 팔 길이는 실측 치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진동길이는 키를 8.3(등신의 비율)으로 나누고 여기에 여유분을 합하여 설계한다. 셋째, 뒷목너비는 가슴둘레를 12등분으로 나눈 후, 0.3cm를 어깨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옆목점의 위치를 조정한다. 넷째, 뒷목높이는 가슴둘레를 30등분한 관계식을 적용한다. 다섯째, 뒤판은 가슴둘레/4에서 1.4cm의 여유분을 더한다. 여섯째, 앞판은 젓가슴둘레/4에서 1.4cm의 여유분에 1cm의 유동분량을 추가한다.

일곱째, 뒤품은 가슴둘레/5에서 체형별로 여유분(0.5~1.1cm)을 더한다. 여덟째, 앞품은 뒤품과 동일하게 가슴둘레/5에서 체형별로 여유분(0.5~1.1cm)을 합한 뒤, 1cm를 빼고, 다시 젓가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값을 더해준다. 아홉째, 뒷판의 허리부분은 허리둘레/4에서 1cm를 뺀 후, 여기에 다트분과 여유분(1.5cm)을 더한다. 열번째, 앞판의 허리부분은 허리둘레/4에서 다트분량과 여유분량(1.5cm)을 더한 후, 1cm를 더한다. 열한 번째, 가슴다트는 어깨 선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젓가슴둘레는 실측치수에 브래지어 착용에 의해 증가된 1cm 더한 수치를 적용하고, 소매길이는 실측치에 3cm를 더한 수치를 적용한다.

2) 체형별 연구원형

본 연구의 원형패턴은 어깨다트가 있는 병용식 패턴으로 연구원형의 제작은 비교 연구원형과 시험 연구원형, 그리고 1차 연구원형, 2차 연구원형으로 4차에 걸쳐 연구원형을 제작한다.

<표 23> 최종 연구원형 패턴 계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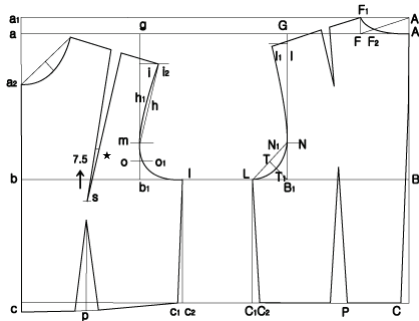
(단위: cm)

필요항목	평균체형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길이 항목	등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진동길이	키/8.3+1.3	키/8.3+1.8	키/8.3+2.2	키/8.3+1.2	키/8.3+0.9
	팔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실측
	목옆젓꼭지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실측
	뒷목높이	가슴둘레/30	가슴둘레/30	가슴둘레/30	가슴둘레/30	가슴둘레/30
	목옆허리둘레선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실측
넓이 항목	어깨사이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실측
	뒷목너비	가슴둘레/12	가슴둘레/12	가슴둘레/12-0.7	가슴둘레/12	가슴둘레/12
	겨드랑뒤백사이길이	가슴둘레/5+0.7	가슴둘레/5+0.9	가슴둘레/5+0.5	가슴둘레/5+1.1	가슴둘레/5+0.7
	뒤판	가슴둘레/4+1.4	가슴둘레/4+1.4	가슴둘레/4+1.4	가슴둘레/4+1.4	가슴둘레/4+1.4
	뒤판허리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겨드랑앞백사이길이	가슴둘레/5+0.7-1+D.T.S	가슴둘레/5+0.9-1+D.T.S	가슴둘레/5+0.5-1+D.T.S	가슴둘레/5+1.1-1+D.T.S	가슴둘레/5+0.7-1+D.T.S
	앞판	젓가슴둘레/4+1.4+1	젓가슴둘레/4+1.4+1	젓가슴둘레/4+1.4+1	젓가슴둘레/4+1.4+1	젓가슴둘레/4+1.4+1
	앞판허리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허리둘레/4+1+1.5
젓꼭지사이수평길이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실측	

상의원형 패턴은 어깨다트와 허리다트를 기본 다트로 설계하며, B.P에서 7.5cm 올라간 지점에서 ★값(젓가슴둘레-가슴둘레/4)을 다트 폭으로 설정하여 패턴화 한다.

(1) 평균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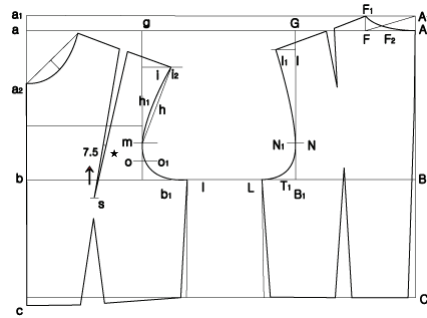
평균체형은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의 신체치수를 합산 평균한 것으로서 이는 국내 20대 여성의 세대별 체형의 특징²⁷⁾을 대표한다. 패턴의 형태적 특징은 특정한 신체부위가 과장되거나 축소됨이 없이 고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앞서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패턴이다.



<그림 2> 평균체형의 연구원형

(2) 작은역삼각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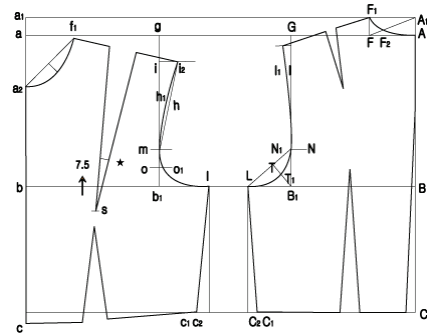
작은역삼각체형의 특징은 평균체형과 비교할 때 상체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평균체형에 비해 몸통이 가는 것이 특징이며, 사이즈 코리아의 조사 결과, 전체 여성의 29%를 차지하는 것²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깨 폭의 수치는 평균체형과 상이하지 않으나 젓가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값으로 인하여 패턴상, 전체 평균체형에 비해 어깨가 나와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3> 작은역삼각체형의 연구원형

(3) 큰삼각체형

전체 20대 여성의 28.8%를 차지하는 큰삼각체형은 평균체형과 비교할 때, 가슴이 발달하여 상체가 크고, 어깨너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²⁹⁾, 상의원형 패턴은 다트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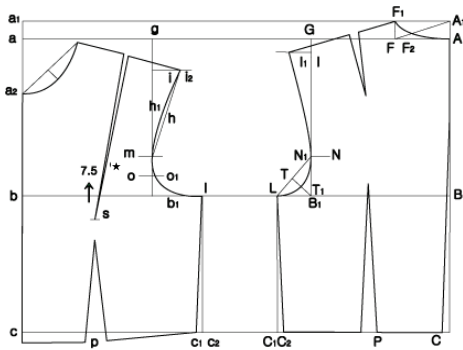
<그림 4> 큰삼각체형의 연구원형

(4) 역삼각체형

역삼각체형은 특징은 평균체형과 비교할 때 상체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몸통이 굵고, 어깨는 넓으나 팔길이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20대 여성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³⁰⁾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상의 원형은 어깨넓이에 비해 가슴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여 다트분량이 적고, 다른 체형에 비해 어깨선이 품선에서 많이 나온 것이 특징이다.

<표 24> 측정도구의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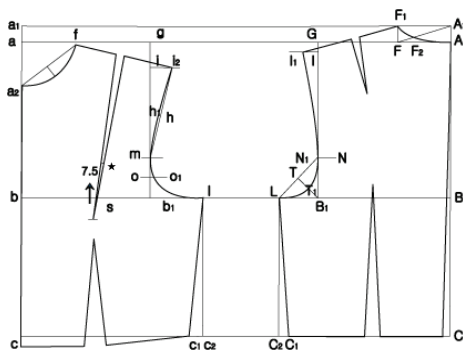
구분	목둘레선	어깨선	앞판	겨드랑이	뒤백사이길이	측면	뒤관	허리선	소매	진동	관능
비교원형	0.98	0.98	0.97		0.86	0.88	0.97	0.97	0.96	0.95	0.99
시험원형	0.90	0.97	0.91		0.80	0.78	0.94	0.94	0.90	0.85	0.98
연구원형1	0.80	0.98	0.91		0.75	0.68	0.93	0.90	0.83	0.83	0.96
연구원형2	0.70	0.99	0.91		0.69	0.81	0.92	0.91	0.90	0.76	0.96
문항수	3	2	9		2	2	9	4	5	5	43



<그림 5> 역삼각체형의 연구원형

(5) 사각체형

사각체형은 특징은 평균체형에 비해 몸통이 가늘고, 어깨 또한 평균체형에 비해 좁으나, 평균체형에 비해 솟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각체형은 국내 20대 여성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따라서 상의 원형의 특징은 평균체형에 비해 다투 분량이 적으며, 어깨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사각체형의 연구원형

2. 연구 평가와 분석

1) 연구원형의 착의 평가

연구원형의 착의 평가는 원형의 맞음새를 기준으로 관계식 설정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관능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실루엣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따른다. 둘째, 직물의 당김이나 울의 틀어짐이 없는 상태로 원형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기준을 둔다. 셋째, 인체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최소한의 여유분이 인체의 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것에 기준을 둔다. 검사자는 의복구성학과 실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원형, 시험 연구원형, 연구원형1, 연구원형2를 단계별로 4차례에 걸쳐 검사, 평가하였다.

2) 관능검사의 신뢰도 분석과 자료분석

관능검사의 신뢰도 분석절차는 내적 일치도 방법에 의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간의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4>와 같으며, 착의 평가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는 모두 Cronbach α 가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검사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원형과 시험 연구원형,

연구원형1, 연구원형2의 관능검사 평가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원형의 관능검사 분석

연구원형에 관한 관능검사의 내용은 <표 25>에 서와 같이 시험원형과 연구원형1, <표 27>의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결과만을 정리하였으며, 비교연구원형과 연구원형의 관능검사 결과표는 장황한 관계로 본 논문에 삽입하지 않았다. 다만 <표 24>의 내용에서처럼 측정 종속변수들 간에 신뢰도가 있었으며, 원형의 관능 분석결과도 시험연구원형이 비교연구원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시험원형과 연구원형의 비교에 있어서도 연구원형이 시험원형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험원형과 연구원형1의 분석결과와 최종적인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관능검사에 관한 비교 부분만을 정리, 게재하였으며, 관능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5>, <표 26>, <표 27>, <표 28>과 같다.

시험원형과 연구원형의 관능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5>와 같으며, 연구원형1이 시험원형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등걸이선은 연구원형이 시험원형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90°에서 움직였을 때 겨드랑둘레선은 연구원형이 시험원형보다 편안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5°에서는 연구원형이 시험원형보다 좋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험원형과 연구원형의 관능을 인체부위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6>과 같으며, 연구원형이 시험 연구원형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외관은 연구원형이 시험 연구원형보다 우수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5> 시험원형과 연구원형의 관능검사 항목별 비교

구 분	시험원형		연구원형		t
	M	SD	M	SD	
앞 중심선	3.93	0.84	4.32	0.78	-2.71**
앞목 둘레선	3.84	0.85	4.21	0.62	-2.58*
옆목 둘레선	3.51	0.97	4.18	0.70	-4.17***
뒷목 둘레선	3.67	0.93	4.45	0.59	-5.20***
어깨선 기울기, 각도	3.56	0.79	4.40	0.73	-6.14***
어깨접	3.58	0.72	4.43	0.73	-6.53***
가슴둘레	3.58	0.66	4.35	0.66	-6.55***
앞판 어깨 다트위치	3.78	0.80	4.45	0.66	-5.33***
앞판 어깨 다트길이	3.27	0.78	4.03	0.76	-5.56***
앞판 어깨 다트량	3.40	0.92	4.08	0.77	-4.62***
B.P위치	3.20	0.66	4.00	0.77	-6.07***
앞 허리 다트위치	3.64	0.91	4.23	0.71	-4.21***
앞 허리 다트길이	3.24	0.71	4.19	0.66	-7.77***
앞 허리 다트량	3.36	0.74	4.05	0.74	-5.20***
앞판 외관	3.24	0.68	4.19	0.65	-8.02***
겨드랑앞백사이길이	3.51	0.84	4.26	0.72	-5.49***
겨드랑뒤백사이길이	3.42	0.78	4.19	0.71	-5.85***
옆 솔기선	3.82	0.75	4.37	0.60	-4.72***
옆의 외관	3.51	0.66	4.18	0.63	-5.85***
뒤 중심선	4.00	0.83	4.47	0.67	-3.62***
뒤 중심선의 인체 곡선	3.67	0.83	4.25	0.72	-4.32***
뒤 허리 다트량	3.38	0.83	4.25	0.72	-6.44***
뒤 허리 다트위치	3.78	0.67	4.32	0.65	-4.61***
뒤 허리 다트길이	3.69	0.67	4.17	0.68	-3.95***
뒤 어깨 다트량	3.49	0.84	4.39	0.70	-6.75***
뒤 어깨 다트위치	3.62	0.78	4.30	0.72	-5.13***
뒤 어깨 다트길이	3.76	0.83	4.34	0.64	-4.63***
뒷면외관	3.33	0.74	4.02	0.74	-5.18***
허리어유	3.31	0.79	4.24	0.62	-6.96***
뒤 허리선	3.78	0.85	4.09	0.75	-2.22*
앞 허리선	3.73	0.96	4.05	0.81	-1.92
옆 허리선	2.78	0.85	3.09	0.75	-2.22*
소매통의 여유	3.64	0.68	3.95	0.74	-2.35*
소매달림선	3.56	0.62	4.01	0.66	-3.91***
소매둘레선	3.49	0.76	3.99	0.72	-3.82***
앞판 소매둘레선	3.58	0.81	4.17	0.62	-4.36***
뒤판 소매둘레선	3.51	0.70	3.90	0.76	-2.93**
진동길이	3.38	0.78	4.05	0.74	-4.97***
부동자세	3.62	1.05	4.37	0.81	-4.24***
앞뒤 90°운동시 겨드랑둘레선	3.87	0.92	3.99	0.96	-0.73
45°팔을 편 상태에서 겨드랑둘레선	3.67	0.74	4.14	0.64	-3.94***

<표 25> 계속

구 분	시험원형		연구원형		t
	M	SD	M	SD	
90° 팔을 편 상태에서 겨드랑둘레선	3.44	0.76	3.89	0.76	-3.26**
전체 외관	3.36	0.86	4.17	0.64	-5.71***

<표 26> 시험원형과 연구원형1의 인체부위별
관능검사 비교

구 분	시험원형		연구원형		t
	M	SD	M	SD	
앞중심	3.93	0.84	4.32	0.78	-2.71***
목둘레선	3.67	0.84	4.28	0.53	-4.47***
어깨선	3.56	0.76	4.41	0.72	-6.47***
앞판	3.41	0.59	4.17	0.54	-7.63***
겨드랑앞 뒤백사이길이	3.47	0.74	4.23	0.59	-6.61***
측면	3.67	0.64	4.28	0.55	-5.87***
뒷판	3.63	0.64	4.28	0.55	-6.19***
허리선	3.40	0.79	3.87	0.65	-3.72***
소매	3.56	0.60	4.00	0.57	-4.33***
진동	3.60	0.68	4.09	0.59	-4.45***
외관	3.36	0.86	4.17	0.64	-5.71***
관능	3.55	0.56	4.17	0.45	-6.53***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관능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앞 중심선과 앞목둘레선, 옆목둘레선, 뒷목둘레선, 어깨선의 어깨 기울기와 각도, 어깨선의 외관, 앞판의 전체적인 외관, 앞판 어깨 다트위치, 앞판 어깨 다트길이는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앞 허리 다트($t=-2.05$, $p<.05$)와 앞판의 전체적인 외관($t=-2.04$, $p<.05$)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앞품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뒷품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01$, $p<.01$). 옆솔기선과 옆의 외관은 연구원형2가 연구

<표 27>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관능검사 항목별
비교

구 분	연구원형1		연구원형2		t
	M	SD	M	SD	
앞 중심선	4.24	0.85	4.40	0.70	-1.03
앞목 둘레선	4.14	0.64	4.28	0.61	-1.12
옆목 둘레선	4.12	0.80	4.24	0.59	-0.85
뒷목 둘레선	4.38	0.67	4.52	0.51	-1.18
어깨선의 기울기, 각도	4.36	0.75	4.44	0.71	-0.55
어깨접	4.40	0.76	4.46	0.71	-0.41
가슴둘레	4.34	0.63	4.36	0.69	-0.15
앞판 어깨 다트위치	4.42	0.68	4.48	0.65	-0.46
앞판 어깨 다트길이	4.02	0.85	4.04	0.67	-0.13
앞판 어깨 다트량	4.08	0.85	4.08	0.70	0.00
B.P 위치	4.00	0.78	4.00	0.76	0.00
앞 허리 다트위치	4.18	0.75	4.28	0.67	-0.70
앞 허리 다트길이	4.10	0.65	4.28	0.67	-1.37
앞 허리 다트량	3.90	0.76	4.20	0.70	-2.05*
앞판 외관	4.06	0.65	4.32	0.62	-2.04*
겨드랑앞백사이길이	4.12	0.72	4.40	0.70	-1.97
겨드랑뒤백사이길이	3.98	0.65	4.40	0.70	-3.10**
옆 솔기선	4.30	0.61	4.44	0.58	-1.17
옆의 외관	4.12	0.59	4.24	0.66	-0.96
뒷 중심선	4.30	0.79	4.64	0.49	-2.60*
뒤 중심선의 인체 곡선	4.10	0.81	4.40	0.57	-2.13*
뒤 허리 다트량	4.10	0.76	4.40	0.64	-2.13*
뒤 허리 다트위치	4.24	0.72	4.40	0.57	-1.24
뒤 허리 다트길이	4.14	0.67	4.20	0.70	-0.44
뒤 어깨 다트량	4.26	0.78	4.52	0.58	-1.90
뒤 어깨 다트위치	4.20	0.73	4.40	0.70	-1.40
뒤 어깨 다트길이	4.28	0.57	4.40	0.70	-0.94
뒷면 외관	3.92	0.80	4.12	0.66	-1.36
허리어유	4.16	0.68	4.32	0.55	-1.29
뒤 허리선	3.98	0.80	4.20	0.70	-1.47
앞 허리선	3.94	0.82	4.16	0.79	-1.37
옆 허리선	2.98	0.80	3.20	0.70	-1.47
소매통의 여유	3.82	0.82	4.08	0.63	-1.77
소매달림선	3.86	0.67	4.16	0.62	-2.33*
소매둘레선	3.90	0.68	4.08	0.75	-1.26
앞판 소매둘레선	4.14	0.61	4.20	0.64	-0.48
뒷판 소매둘레선	3.96	0.67	3.85	0.84	0.80
진동길이	3.86	0.78	4.24	0.66	-2.63*
부동자세	4.38	0.83	4.36	0.80	0.12
앞뒤 90° 운동 시 겨드랑둘레선	3.82	1.00	4.16	0.89	-1.79

<표 27> 계속

구 분	연구원형1		연구원형2		t
	M	SD	M	SD	
45° 팔을 편 상태에서 겨드랑이둘레선	4.08	0.57	4.20	0.70	-0.94
90° 팔을 편 상태에서 겨드랑이둘레선	3.86	0.73	3.92	0.80	-0.39
전체 외관	4.02	0.62	4.32	0.62	-2.41*

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뒷 중심선($t=-2.60, p<.05$)와 뒤 중심선의 인체 곡선($t=-2.13, p<.05$), 뒤 허리 다트($t=-2.13, p<.05$)는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뒤 허리 다트위치와 뒤 허리 다트길이, 뒤 어깨 다트, 뒤 어깨 다트위치, 뒤 어깨 다트 길이, 뒷면의 전체적인 외관, 허리여유, 등길이, 등길이선, 등길이선의 수평, 소매통의 여유는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소매 달림선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3, p<.05$). 소매둘레선과 앞판 소매둘레선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뒤판 소매둘레선은 연구원형1이 연구원형2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진동길이는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3, p<.05$). 부동자세에서 겨드랑이는 연구원형1이 연구원형2보다 편안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0°에서 움직였을 때 겨드랑이둘레선과 45°에서 겨드랑이둘레선, 90°팔 편 상태에서 겨드랑이둘레선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자연스러웠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좋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1, p<.05$).

이상의 결과에 준해 볼 때, 시험 연구원형과 연

구원형1의 결과는 연구원형1이 분석결과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비교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나 평가한 결과,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앞판의 외관과 앞품, 뒤품, 뒷 중심선, 뒷중심선의 인체 곡선, 뒤 허리 다트, 소매 달림선, 그리고 진동길이가 적당하였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원형1과 연구원형2의 관능을 인체부위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앞 중심과 목둘레선, 어깨선, 앞판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품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1, p<.01$). 측면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뒤판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99, p<.05$). 허리선과 소매, 진동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적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관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좋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

<표 28> 연구원형1, 연구원형2의 인체부위별 관능검사 비교

구 분	연구원형1		연구원형2		t
	M	SD	M	SD	
앞중심	4.24	0.85	4.40	0.70	-1.03
목둘레선	4.21	0.60	4.35	0.45	-1.26
어깨선	4.38	0.75	4.44	0.70	-0.41
앞판	4.12	0.56	4.23	0.52	-0.96
겨드랑이 뒤백사이길이	4.05	0.59	4.40	0.53	-3.11**
측면	4.21	0.53	4.34	0.57	-1.19
뒷판	4.17	0.59	4.39	0.49	-1.99*
허리선	3.77	0.68	3.97	0.62	-1.58
소매	3.94	0.54	4.07	0.59	-1.20
진동	4.00	0.61	4.18	0.55	-1.51
외관	4.02	0.62	4.32	0.62	-2.41*
관능	4.08	0.46	4.25	0.42	-1.91

이를 보였다($t=-2.41, p<.05$). 전체적으로 관능은 연구원형2가 연구원형1보다 우수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인체부위별 관능검사의 결과, 시험원형과 연구원형1의 비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형1과 2의 비교는 여유량에 관한 세밀한 부분만을 조정하여,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 유의미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IV. 결론

본 연구는 3D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원형패턴의 운영에 대한 과도기적 한계와 체형별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원형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이크로리아에서 분류한 한국인의 체형을 기초로 상의원형 패턴제작에 관한 관계식을 설정하여 국내 20대 여성에 관한 체형별 원형 패턴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단일 원형의 오류 해소의 방안으로서 체형별 원형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둘째 최적의 원형 패턴에 관한 물음으로서 개인차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대량생산의 활용도를 고려한 원형 설계의 방법론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연구 실험의 결과로서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을 기준으로 대량생산이 용이한 체형별 원형 패턴의 계산식 체계를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분화 패턴의 기초연구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형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20대 여성의 체형별 상의원형 패턴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관계식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로 현 시점을 고려할 때, 개별화된 패턴의 운용은 사실상 세분화된 패턴의 운용과 다름이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1인 1패턴’의 상용화는 경비와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더욱 더 많은 체형 세분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계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즉, 1인의 체형을 개별적으로 패턴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체형별 패턴에 대한 관계식의 메모리나 운용에 따른 관리는 컴퓨터로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식의 연산처리를 체계화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분화 패턴의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5가지의 체형에 관한 분류에 그치는 결과를 얻었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체형별 원형패턴의 체계적이고도 세분화된 관계식 설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윤승현, 현대은, 김명수 (2004). 3차원 인체측정과 디지털기술: 3차원 인체측정과 형상변형기술, 한국의류학회, 1(-), pp.45-47.
- 2) 장수정 (2003). 20대여성의 체형 유형화를 통한 기성복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8-100.
- 3) 임원자 (1976). 의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pp.18-22.
- 4) 박혜숙 (1981). 서양의복구성, 서울: 수학사, pp.29-34.
- 5) 이영주 (2001). 신·구 문화식 원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pp.423-428.
- 6) Istituto Carlo Secoli (2003). Modellistica Industriale Donna, Milano, pp.11-16.
- 7) ESMODE (1994-a). Pattern Making Manuel Women's Garments, Paris, pp.113-115.
- 8) Helen J. A. (2005). Pattern Making for Fashion Design, New Jersey: Prentice Hall, pp.34-38.
- 9) 정복희, 나미향 (2001). 20대 여성의 Tight-fit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8), pp.150-151.
- 1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a). 인체측정 표준용어집, 서울, pp.73-125.
- 1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b). 표준체형 한국인, 서울, pp.15-17.
- 12) 위의 책, p.25.
- 13) 위의 책, pp.15-17.

- 14)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홍혜정 (1998).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pp.113-115.
- 15) ESMOD (1994-b). Methode de Coupe Vêtements Féminins, Paris, pp.79-88.
- 16) Istituto Carlo Secoli. 앞의 책, pp.3-13.
- 17) 라사라문화정보 (1996). 패션패턴메이킹, 서울: 라사라출판사, p.9.
- 18) 이승렬 (1996). 이승렬의 패턴이야기, 서울: 기술과감성, pp.110-119.
- 19) 박혜숙. 위의 책, pp.30-37.
- 20) 시대F.D.A (1994). 패턴커팅 메이킹, 서울: 도서출판시대, pp.54-56.
- 21) 최경자 (1999). 패션디자인 & 패턴메이킹, 서울: 국제패션문화사, p.69.
- 22) 김희영 (1988). 각종 성인여성 Bodice원형의 비교 연구, 전주우석대학 논문집10, pp.221-240.
- 23) 이명옥 (2000).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의복원형 교육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30.
- 24) 이형숙, 임영자 (2000).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87.
- 25) 위의 책, p.87.
- 26) 김지민 (2002). 성인여성복 토르소원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
- 2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b). 앞의 책, pp.15-17.
- 28) 위의 책, pp.2-3.
- 29) 위의 책, pp.2-3.
- 30) 위의 책, pp.2-3.
- 31) 위의 책, pp.2-3.
- 32) 윤을요 (2005). 리즘적 체계와 합목적성에 기초한 체형별 원형패턴,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4-194.

Bodice Patterns of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According to Body Type

Yun, Eul Yo · Park, Sun Kyung⁺

Visiting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bodice pattern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according to body typ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n idea to minimize errors between single bodice patterns and different body types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ngle bodice patterns by taking people's physical shapes into accoun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est idea to satisfy the efficiency of mass production and consider the differences of individual physical shapes in realistic ways is fractionalization of patterns. Accordingly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future 3D patterns, the use of bodice patterns according to body type can be suggested as a rational solu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is transition period. The method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bodice patterns of 13 Korean upper garments were compared. Second, relations among body parts that can be indexes for designing upper garment patterns were researched. Third, pattern calculation formula for designing the bodice patterns of this research were systemized according to types of physical shapes from previous study results. Furthermore, pattern calculation formulas needed for designing the bodice patterns of categorized and systemized into formulas for five physical shapes. Samples were designed and analyzed.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on bodice patterns according to body types when designing fractionalized bodice patterns in the future.

Key words: body type, bodice pattern, pattern calculation formula